토 론 회

2008 촛불시위가 창조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 참여민주주의 21년, 진화와 창조의 動學

발제 I	하승창/ 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발제 II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엔지오학과 교수
토론 I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토론 II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토론 III	엄기호/ 성신여대 문화컨텐츠학부 강사
토론 IV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 오연호 :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촛불시위가 40여일 가까이 진행 중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시민의 새로운 힘을 발견하고,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토론과 대안 형성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목격하지 못했던 수많은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은 희망제작소와 함께 촛불문화제의 희망과 의미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나아가야 하는지 토론을 진행한다. 방송을 지켜보는 네티즌여러분들도 오마이뉴스의 기사에 댓글로 참여할 수 있다. 지금 희망제작소 2층 희망모울에 약 5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다.

오늘 토론에서는 세 가지를 짚어보겠다.

1) 촛불문화제(촛불집회, 촛불시위)의 의미와 성격 규정
2)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인터넷의 기여 가능성
3)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할 일

– 발제 1

▷ 하승창 : 87년 6월과 2008년 6월을 비교해보는 발제를 하겠다. 이론적인 분석을 하는 능력은 제게 없지만, 둘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21년의 시간차이가 있는데, 6월 민주항쟁이라 부르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그 자리에, 6.10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지 몇 해 되지도 않아서, 마치 데자부처럼 비슷한 또다른 역사를 목도하고 있는 요즘이다. 21년 전 주역이던 386세대들은 같은 공간에서 다시 피켓을 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환경이라는 점을 확연히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다. 21년 전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던 경험과는 여러 모로 다르다. 21년 전에 '거리에 나간다' 고 하는 느낌은 팽팽한 긴장과 두려움 앞에 굳은 결의를 하고, 동지들의 어깨를 거머쥐고 걷고 나가는 그런 경험이었을 텐데, 지금은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없다. 오히려 해학과 풍자가 어우러져서 즐거운 놀이처럼, 동지 대신 가족과 친구들의 손을 잡고, 화염병과 짱돌 대신에 휴대폰과 디카를 들고, 자신들의 행위를 스스로 기록하고 전달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전사들의 새로운 유형의 집회와 시위를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다.

영원한 우리땅, 독도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요구의 성격 또한 세월에 따라 달라졌다. 요구가 조직되는 경과들을 살펴보면, 바로 21년 전 6월 항쟁의 승리에 따라 얻어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권력을 갖게 된 이명박 정부가 다시 그 거리로 사람들을 불러내고 있다.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지 왜 저러고들 있어?' 라고 했다던 프랑스 혁명 때 왕비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소비자가 안 사먹으면 되지 왜 저러고들 있어?' 가 대통령의 태도였다. 이 국민들의 요구와 주장을 괴담이나 누군가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폄하하고 왜곡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이제는 물러나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아, 저 사람의 인식과 태도가 대통령의 그것이 아니구나.' 라고 국민이 생각하게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이고 정부이다. 21년 전에는 권력을 갖게 되는 절차의 민주성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내용을 행사하는 내용의 민주성까지 요구하고 있다. 탄핵 때 얘기가 많이 나왔던 헌법이 다시 많이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87년 6월에는 독재정권 타도와 직선제 개헌이라는 요구로 시작해서 7,8월 노동자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각 분야의 생활상의 요구와 비민주적 기제들의 해체가 진행되어 갔다면 지금의 과정은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 논란이 되어 온 영어몰입교육부터 학원 자율화정책, 건강보험 및 수돗물 민영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까지 생활상의 이슈들에 대한 논란과 종국엔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한 분노로 촛불시위가 촉발되고 그에 대응하는 정권의 태도가 결국 정권의 퇴진이라는 시위구호로 발전해 가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소위 '생활정치'에 대한 요구로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회운동을 해 온 제 입장에서 볼 때 주목되는 것은 이런 시위가 조직되는 경로와 관련된 것이다. 87년 6월에는 이한열의 죽음을 계기로 보다 대중적인 시위로 발전하게 되었다. 국민운동본부라는 지도부가 조직되어 있고 그들이 통일된 구호, 시위방법, 시위 일시 등을 정하고 정보를 유통시키며 시위를 조직하는 단선적인 방식이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익숙하고 당연했다. 그러나 08년 6월에는 통일된 조직의 중앙은 존재하지 않으니,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광우병대책회의가 중앙이 아니라는 것은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 광우병대책회의도 그야말로 회의일 뿐이다. 아고라가 배후단체라는 코미디 같은 얘기도 있다. 아고라가 배후단체면 지금 이 토론회도 배후단체다.
이런 여러 중심들이 제각각의 네트워크의 범주 안에서 논의하고 정보를 유통시키며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동의를 모아 행동을 결정하고 스스로 참여를 결정하고 있다. 아무런 구속력이 없이 들고 나는 것이 매우 자유로운 것이므로 72시간 릴레이집회를 조직적인 동원이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성사시켜 나간 것이다. 조직되고 동원된 대중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유로운 개인이다. 배후는 없다.
참여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자면,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은 시민단체를 매개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2002년 이후 알아 버린 것이다. 이제는 참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어떤 '기획'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사례인 것 같다. 반대로 누구나 촛불집회를 제안했다고 하는 '안단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다.

- 발제 2

▷ 민경배 :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바쁘다. 유조선에 기름 샜다니까 다들 태안에 우르르 몰려가고, 끝날 만하니 또 우르르 몰려나와 촛불 들어야 한다. 도무지 쉴 여유를 주지를 않는다. 눈코뜰새 없는 국민들의 처지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2008년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영원한 우리땅, 독도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한 달여 전만 해도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물대포에, 방패로 찍고 군화발로 짓밟는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80년 광주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이다. 또 정부와 보수언론으로부터 음모론, 괴담론을 들으면서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의 음습한 분위기를 연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뜻밖의 형태로 많이 나타났다. 한 가지 소개하자면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가장 잘한 일을 꼽아 보라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헌법상의 각종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도록 촉진한 공로가 컸다", "FTA, 광우병, 통상과정 등등 국민들을 공부 많이 하게 만들었다" 등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 정도 되면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정서는 체념에 이르렀다고 봐야 된다. 그러나 이 체념이 절망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은 이 상황을 여유 있게, 재치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여유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고, 그 자신감은 정당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민을 억압하고 음모론을 유포하려하는 정부의 태도는 80년대의 그것으로부터 한걸음도 진화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태도는 2008년도의 디지털 시민의식으로 상당히 성숙해 있다. 결국 지금의 정부의 태도와 시민들의 의식 사이에는 80에서 2008,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이라는 상당히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한다. 소통이야말로 디지털시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당연히 수평적 쌍방 소통을 뜻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아니라 친박연대와, 그리고 타임즈의 기자와 소통을 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우리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경제를 생각하는 마인드를 여지없이 보여 주셨다.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 첫날 시민들을 연행해 갔을 때, 경찰들이 '다음 아고라에 언제 가입했어? 언제부터 활동했어?'라고 물었다더라. 옆에 있는 형사가 '아고라가 뭐야?' 라고 묻자, '인터넷에 결성된 좌파조직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더라. 연행된 친구가 보다보다 딱해서 '혹시 이메일 한메일 쓰세요? 그럼 형사님도 아고라 회원이네요.' 라고 대답해 줬단다. 디지털에 대한 정서 이전에 기초 상식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정부와 시민간의 정보격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인상 깊었던 사례를 소개할까 한다. 청와대진입 시도 후 얼마 안 된 6월초, 한 네티즌이 블로그에 구글어스를 통해서 광화문에서 청와대에 이르는 지형을 포스팅했다. 빨간색으로 경찰들 집결지와 주 이동경로를, 시위대의 이동경로를 파란색으로 그려넣고 해설을 달았다. 마치 군사작전 같이. 시위대는 사전에 치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제 인터넷 휴대폰뿐만 아니라 구글어스 위성사진까지 동원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경찰들의 가장 유력한 소통수단은 80년대에 쓰던 무전기이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가 이런 것에서도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싶다. 한마디로 '아날로그 정부와 디지털 시민들의 격돌' 이라고 이번 촛불시위를 정의하겠다.

과거에도 촛불시위가 있었으나, 시민들의 참여와 역할수행을 보면 지난 2004년에 비해 진화되고 있다. 시민들이 어떤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4가지 정도의 활동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참가자이다. 촛불을 들고 나가 가두행진을 벌이는 직접적인 행위자들이다. 두 번째 유형은 기록자이다. 디지털카메라와 캠코더로 현장의 모습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다.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을 채증하는 경찰을 역채증하는데, 경찰들을 제어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보수언론의 보도태도가 실제 시민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영원한 우리땅, 독도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있는 데에는 이들의 공헌이 크다. 신문기사와는 전혀 다른 생생한 현장이 동영상으로 그대로 중계가 되므로, 새로운 시민 저널리스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세 번째 유형은 분석자이다. 집에서 컴퓨터로 주로 작업한다. 이들의 추적으로 폭행 경찰의 소속과 신분이 8명중 1명으로 좁혀졌다. '네티즌수사망'이 거기까지 좁혀지니 경찰이 먼저 사법처리 한다고 나섰다. 또 집회 참가시 챙겨야 할 물품, 경찰 연행시 대처 노하우를 정리해서 알려주기도 한다. 네 번째 유형은 전파자이다. 이들은 마치 동호회 번개를 갔다 온 것처럼 집회참석 후기를 올리고, 퍼나르고,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다음 아고라에 퍼올린다. 인터넷상의 의제설정과 여론조성을 주도하는 빅마우스들이다.

시민참여와 디지털이 어떻게 접목되는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까 한다. 이것이 단지 디지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차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참여자들의 정서나 행동방식, 흐름 자체가 오프라인에 그대로 반영된 측면이 엿보였다. 웹2.0의 기본원리가 이번 시위에 구현되었다. '플랫폼으로서의 웹'이란 누구나 자유롭게 오가며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웹 환경을 의미한다. 촛불시위 현장 자체가 플랫폼이며, 그 안에서 참여하고 있는 네티즌들은 무수히 많은 컨텐츠와 내러티브를 생산한다. 또 가두시위 행렬을 보면 하이퍼링크적인 흐름과 많이 닮아 있다. 예전의 시위 방식은 이른바 80년대 학생운동의 '교문박치기'가 전형적이었다. 지금의 시위방식은 상당히 유연하다. 막히면 다른 곳으로 우회하고 갈라지고 주저앉고, 웹상에서 하이퍼링크를 따라서 네티즌이 서핑을 해나가는 모습과 닮아 있다. 세 번째로는 놀이과 저항이 절묘하게 화학적으로 결합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촛불데이트, 촛불동창회 등의 멀티태스킹을 한다. 네티즌들이 보여주는 재미있는 모습들은 언론에도 수차례 소개되었으므로 많이 언급하지 않겠다.

시민운동의 패러다임 자체에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로등과 점멸등에 비유해 봤다. 전통적인 시민운동의 방식이 가로등처럼 한 곳에 붙박이로 자리하며 상시적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이었다면, 지금 보여주는 참여의 모습은 마치 크리스마스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점멸등과 같다. 개개의 빛은 미약하고 영속적으로 불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작은 불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점멸을 거듭하며 다른 어떤 불빛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밝혀준다.
웹2.0의 철학인 참여, 자율, 개방, 공유 등의 키워드는 시민운동에서 늘 이야기하던 민주적 가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디지털 시민참여를 보다 더 능동적, 성숙한 방향으로 구성할 수 있는 미디어 통신환경을 이번 촛불시위에서 읽을 수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 토론 1

▷ 김은실 : 이번 촛불문화제는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장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이 민주화가 됐다는 것이 하나의 레토릭이었고, 한편으로는 지난 10년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 촛불시위의 이슈는 광우병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소고기 수입에서 시작이 됐다. 지금까지 식품안전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었다. 그리고 지난 중국 김치 등의 사건에서는 국가가 빨리 대응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건 국가가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먹거리 문제가 굉장한 정치적 이슈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소녀, 10대 여

영원한 우리땅, 독도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성들, 어머니들이 이슈화를 시켰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주체가 되었다. 정치적 소수자들이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는 장이었다.
지난 20년간 변화된 시민의 민주 주체성 문제와,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자들간에 엄청난 인식 차이가 있다. 이들 사이의 민주주의와 주권에 대한 인식의 대조를 느끼게 하는 장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주체가 된 10대 여성들을 만나 봤다. 맨 처음에는 10대 여성들의 놀이문화로 시작이 됐다. 그들은 집단으로 놀고, 같은 집단의 친구들과 끊임없이 문자를 주고 받는다. 시위장 갈 때도 문자를 보내고, 자기들이 노는 그룹 단위로 간다. 또 팬덤 문화가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때 당시 아는 남자아이들은 거기 가는 대신 피시방에 가서 놀고 게임하고, 자기네는 끼리끼리 시위장에 갔다더라. 그런데 시위가 진행이 되면서 남자친구들도 시위장에 왔는데, 그들은 '내가 투표권을 갖지 않아서 이런 대통령이 뽑혔다'는 정치적인 거대담론을 펼쳤다. 옆에서 여자친구들은 '저런말을 들으면 나는 할말을 잃는다. 나는 고3이라 추억 남길 겸, 친구들이 간다고 하니까, 연예인들이 온다니까 참가했는데, 그러면서 문제를 배우기 시작했다.' 고 하더라. 하나의 집단이 만들어지고 그 집단이 정치적인 것으로 점화되는 과정들이 존재했다, 여기 맨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다함께 그룹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면 정부는 다르게 반응했을 것이다. 정치적 과정에 대한 정치 대표자들과 시민들이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을 잃어버렸다' 며 규범과 가치에 포커스를 두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용, 이해, 경제' 를 '규범, 가치, 명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20년간 근대화 이후 한국사회에서 만들어진 시민적이고 국민적인 정서로서의 민족주의 정서가 있다. 이 정서가 '실용, 신자유주의, 개인'과 충돌하면서 처음에는 당황했다. 그러나 소고기파동 식품주권이 등장하면서 '실용'과 '국민의 안전, 보호'는 매우 대치되고 있다고 하는 정서적인 분출이 등장했다. 새로운 민주주의와 주체성에 대한 이해가 등장하는 장이었다.

▷ 엄기호 : 나는 지난 5년간 외국에서 반세계화 운동을 해 왔다. 역사적인 데모현장을 많이 경험해봤다. 하승창 선생님의 말은 한마디로 '사회운동 방식에서의 87년 체제가 종식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프랑스의 노동법 반대 시위에서 내가 몰랐던 것은 우리가 87년 이후에 시위를 했었던 것과 같은 '보와 열을 맞추고 깃발 밑에 사각형으로 모여서 행진하는' 시위가 완전히 종식되었다는 것이다. 뭄바이의 세계사회포럼에서 100만 명이 시위를 했다. 내가 위에서 사진 찍으려고 내려다보니 딱 한 나라만 네모나게 앉아있더라. 한국시위단. 지금까지 87년 이후 한국에서 광장이라고 알고 있었던 건 사실 연병장이었던 거다. 이런 연병장체제가 이제는 해체되고, 진보신당이나 사회운동세력 모두가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스스로도 당황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연병장체제가 해체되고 정말로 광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어떤 깃발을 보니 'again 1987'이라는 구호가 있던데, 전혀 그게 아니다.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후지다.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동성이 너무 강해서 어떤 깃발 밑에 묶어두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다. 당원이라고 한다면 가장 소속감과 충성심이 높아야 하는데, 진보신당 당원인 내가 당 깃발 말고 다음에는 아고라깃발 밑에 가겠다고 한다. 이렇듯 개인의 역동성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것 같다.
두 번째로, 나는 이것이 정당성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50프로 이상의 지지를 받고 집권한 이 정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느냐?" 존재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쇠고기파동에서처럼 국가가 국민을 전혀

영원한 우리땅, 독도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왜 존재하냐? 87년처럼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국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다. 신자유주의는 배스킨라빈스이다. '아이스크림개수는 늘려줄 테니 골라서 사먹는 건 국민이 해라.' 이게 이 대통령의 태도이다. 국민들은 그럼 '넌 배스킨라빈스 사장 하지 왜 대통령 하냐.'고 되묻고 있다. '니가 싼 똥 니가 치워라' 라는 멋진 구호를 어제 봤다. 신자유주의 국가체제 자체는 그 똥을 치울 능력이 없다. 이명박이 소나기는 피해가면 된다고 했다는데,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장마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 아고라, 진보신당, 민노당, 모두가 '6월 10일 그 이후에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안진걸 : 전대미문의 경이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시민네티즌 대항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국민들의 지지도 매우 높고, 이 항쟁이 잘 될수록 대통령지지율이 떨어져서 지금은 16프로까지 떨어진 듯하다. 지치지 않고 점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핵심에는 이 대통령이 있다고들 한다. 배후는 정말 이 대통령이다. 사실 지식인들이나 사회운동 단체들은 '너무 나쁜 정부'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아직 탄핵 퇴진까지는 얘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12월 19일 당선될 때부터 지금까지 6개월 지났는데 그동안 지켜본 결과 앞으로 더 나쁜 짓을 할 것 같으니 지금 이쯤에서 퇴진시키자'고 대규모로 얘기하고 있다. '고시철회 협상무효' 는 안 좋아하고, '이명박 퇴진' 구호를 외치면 너무 좋아하는 것이 참가자들의 정서다. 우리(민중, 서민)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앞으로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은 정부가 출현했다고 생각한다. 대운하부터 시작해서 상속세 폐지까지, 입만 열면 서민들을 말살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라는 인식이 강하고, 거기에 대한 엄청난 절망을 느끼고 있다. 그것이 이 항쟁의 중요한 동력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의 사이버민주주의가 오프라인으로 전환된 것이다. 갑자기 전환된 것은 아니고 이 대통령 당선 전에도 활발한 토론이 있었고 당선 후에도 매우 많은 토론이 있었다. 친일파 명단을 발표했을 때 이 대통령이 매우 불쾌해하고 '우리가 일본도 용서했는데' 라는 유명한 말을 했었지 않느냐. 그에 대해 달린 댓글의 99프로가 '우리는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는데' 였다. 대통령에 대한 분노 실망에 대한 토론이 온라인에서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다가, 광우병 소고기 수입 문제가 터지면서 폭발한 것이다. 중고등학생들은 영어몰입교육에 화가 나 있다가 마침 중간고사도 끝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진보진영에서는 '우리는 무능하고 낙후되었으며, 관성에 젖어있었구나' 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5월 2일에 그렇게 모이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날 모여든 시민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운동권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정말 (주도한) 운동권이 없어?' 라고 서로 물었다.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주권의식으로 무장한 사이버 공중들이 토론을 통해 참여하는 전대미문의 건강한 흐름이 생긴 것이다. 광우병대책회의도 무능과 낙후, 관성 때문에 여러 가지 타당한 지적을 받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 시민사회의 역할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분명히 있었다. 배후나 주도, 지도 같은 것은 하지도 못했고, 해서도 안 되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5월 17일에 새벽3시까지 거리에 있었던 시민들에게 대책회의가 '이제 집에 갑시다' 라고 말했더니 '힘들면 당신이나 집에 가'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왜 집에 가자 그러냐. 재밌게 끝장을 보아야지. 우리들은 그 말에 감동받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쫄기도 했다.
이제는 시민네티즌이 주도하는 항쟁으로 나아가되, 우리들은 그분들이 용납하고 납득하는 선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의 역할을 잘 찾아서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에게 도움이

영원한 우리땅, 독도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되는 방향으로, 함께 하고자 한다. 상당수 네티즌들은 광우병 때문에 모인 것만은 아니므로, 재협상 요구는 기본이고 이 열기는 그냥 수그러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 오연호 : 네티즌들의 댓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 토론회라서 그런지 촛불시위 중계 때보다 댓글도 차분하고 진지하다. '여긴 도배하는 인간 하나도 없네' 라는 댓글도 올라왔다.
나는 중3딸 때문에 촛불집회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내 친구가 광우병 문제때문이 분노해서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대. 자기도 내일 집회에 나갈 거래.' 라는 딸의 말에 우리는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다음날 집회에 나가보고 나는 경악했다. 수많은 여중고생들이 나와서 이명박 정권을 향해서 '아저씨 좀 물러나주실까요' 도 아니고 진지하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더라. 나 같은 386세대는 그렇게 10대들을 보면서 이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
여성회에 몸담고 있는 내 대학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딸은 '물러나라 물러나라' 하는데 자기는 차마 손을 못 들고 구호도 못 하겠더라. 딸이 '엄마는 그럴 거면 뭐 하러 나왔어' 라고 했다더라. 오마이뉴스의 한 대학생은 자기 여동생으로부터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왜 안하냐' 고 들었다고 한다. 초반에는 이렇듯 10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었다. 한 달 동안 진행된 이 시위는 '누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힐 것인가'에 대해 한 가지, 그리고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가'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질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을 전후로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다. 세상이 이런 방향이구나, 하고. 신자유주의라고 할까. '어쩔 수 없구나, 따라 가야하는구나' 하고 대학생도 386세대도 모두 생각했었다.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둠의 터널'을 가는데, 촛불 세대가 등장한다. 그들이 '그건 아닙니다.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촛불세대가 중심이 되어 다른 여러 세대들에게 우리 사회가 대충대충 가서는 안 된다, 제대로 어디로 가야할 지 점검한 상태에서 가야 한다는 것을 채찍질해준 거라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진보진영은 방전된 상태였다. 그러나 10대들이 촛불을 켜면서 '어둠의 터널'을 가고 있는 기성세대들을 충전시켜줬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원기를 회복시켜준, 배터리를 충전시켜준 사건이었다.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가? 그것은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가장 많이 노래 부르는, 마치 유행가처럼 부르는 헌법 1조가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주인인 국민을 배제한 체 협상이 진행된 데 대한 반발이었다.

– 토론 2

▷ 오연호 : 여러 질문이 네티즌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먼저 여기 함께 하신 시민여러분들과 발제자 분들의 보충을 먼저 듣도록 하겠다.

▷ 하승창 : '87년 체제의 종언'이라는 엄기호 선생님의 정리가 명쾌하다. 87년 이후의 사회운동이 위기에 봉착했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 그 전조는 2002년부터 있었던 거 같다. 2002년 대선연도에 공동사무처장을 했었는데, 정말 파리 날렸었다. 모두 다 노사모로 가고, 재미가 없었다. 00년 방식으로 02년에도 조직했었는데 이미 그 방식이 낡은 방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04년 탄핵 때 그것이 확연히 확인됐었다. 이번에는 더하다. 07년과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의 정치 · 사회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솟아나오는 요구나 열기는 불가능하다. 사회

영원한 우리땅, 독도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운동도 여러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한 단계 마감지어지고 나면 사회운동 안에서는 많은 토론이 있게 되지 않을까. 08년 6월은 우리에게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사건이 될 것 같다.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판단주체가 대중화되어있다. 지도부의 논의를 통한 방침의 결정이 전달되는 것이 운동 조직의 양상이었던 것에서,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얼마든지 판단하고 결정하며, 자신들이 할 수 있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개인들이 주체가 되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다는 것을 앞으로는 운동권 측에서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 오연호 : 토론을 전후반으로 나누어 보자면 지금은 촛불시위의 의미와 성격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겠다. 안진걸 선생님께서는 시민네티즌 항쟁이라고 표현하셨다. 여러분들은 촛불문화제를 무엇이라 이름붙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 민경배 : 웹2.0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민운동 2.0이라고 할까. 시민운동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전환기로 접어들었다. 조직 중심적인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개개인이 주체가 되고, 그들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운동을 만들고 진행해 나가는 새로운 의미들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조짐들은 사실 예전부터 계속 있어왔다. 이번에 이것이 응축적 · 폭발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작은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든다.

▷ 시민 : 촛불 같은 형태의 의견표출이 계속 되는 현재진행형 상황이다. 그런데 이것이 후에는 정책이 되어야 할 텐데, 현재 너무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 것 아닌가? 정부는 국민 말을 듣지 않고, 입법부는 견제하지 못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은 계속 현장에서 촛불을 들어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되어야 할까. 뭔가 참여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닐까.

▷ 엄기호 : 지금은 '진짜로 믿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라고 하고 싶다.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들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다. 헌법1조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사실 나는 헌법1조, 민주주의, 참여 같은 것들을 믿지 않았었다. 지젝의 말처럼, 진보진영의 당황스러움 이면에는 '진짜로는 안 믿었다'는 사실이 있다. 10대들을 비롯하여 시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진짜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믿고 있다. 지금 세상을 바꾸는 건 진짜로 믿는 사람들인 것 같다.

▷ 김은실 : 이 시위는 굉장한 유동성을 갖고 있다. 그로부터 엄청난 생명력이 나온다. 이 주체성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한 이름으로 묶는다는 것에서 오히려 더 반발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엄 교수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1987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그 이전에 태어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민족주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 1987년 이후에 태어나서 중고등학교에서 국민교육을 받는 대신 국사 교육을 받고, 잘나가는 국가라는 의식을 교육받고, 민주성을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주체성이 다른 집단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명박 정부 그들의 국가,국민,민족,시민 에 대한 의식과 민주항쟁 이후 출생자

영원한 우리땅, 독도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들의 시민에 대한 의식은 전혀 다르다. 해방 이후, 정부수립 이후, 박정희 민족주의 이후에 태어난 각각의 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나와 국가와 권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들이 광장에 매우 다른 에너지로서 각각 분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안진걸 : 이런 '명명'마저도 단체나 지식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어떤 토론회에서는 멀티대중, 다중들이 등장했다고도 하고. 지금의 이 활동이 에너지소모 라는 얘기도 나오고 지치신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활동은 이미 여러 가지 성과와 승리, 변화를 한국사회에 일고 오고 있다. 네티즌이 정말 바라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 퇴진'이 안 된다고 해도, 황당하고 잘못된 정책의 철회로 이어지는 귀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 시민 : 순천YMCA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과 서울광장에서 활동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만 공감하는 바는 같다. 마치 2002년 월드컵 응원시설을 '왜 우리지역은 안하느냐'라는 요구에 의해서 여러 지역에서 시작을 했듯이, 우리도 5월초 서울에서 일이 벌어지니 시민들로부터 '어디서 하나, 우리는 왜 안하나' 이런 요구가 이어져서 5월 9일부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런 확실한 배후주도세력이 있나' 라는 농담을 하면서 유모차 밀고나온 엄마들과 어울렸다. 축제개념이 확실히 있다. 저항과 축제가 잘 어우러졌으면.
절차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내용행사까지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대들이다. 쇠고기라는 작은 불씨가 더 많은 것을 끌고 나온 동력이지 않았을까. 생활, 혹은 정책을 선택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무겁게 담겨 있다. '다중' 개념과 연결지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보니, 아이들이 왜 저렇게 나약하고 인내심 없고 게임에만 몰두해 있는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보니 민주주의의 근본인 인권과 인간존엄성에 대해 참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최첨단을 요구하는 아이들이 우리의 뒤를 잇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 민경배 : 다중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잡힌 개념이 아니다보니, 지금 이 복잡한 양상을 다중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집회에 몇 번 참석해봤는데, 여기 혼자 오면 진짜 심심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혼자 와도 깃발보고 찾아가면 됐던 옛날과 달리, 지금은 혼자 오면 뻘쭘해진다. 새로운 커뮤니티가 주체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이 주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개개인들의 복합적 형태를 가지고 다중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단순한 개인은 아니다. 커뮤니티의 실체가 과거에는 운동단체, 이익단체, 정당, 이런 전통적인 조직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성격의 커뮤니티들이 온다. 동창회, 가족, 인터넷상의 여러 가지 동호회들, 심지어 패션관련 여성동호회도 나온다. 이런 커뮤니티 단위들이 다변화되고 각각의 다양한 욕구들이 하나의 용광로와 같은 광장에서 뒤섞여 녹아내리는 상황이 아닐까.

▷ 시민 : 지금의 촛불집회가 민주주의에 대한 혁명적인 현상이고, 한편으로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라고도 얘기한다. 결국 현 정치권이나 제도권에서는 시민들의 이해 요구 국면에 대해 전혀 호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의정치의 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하승창 : 이 문제에는 지금 대의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담겨 있는 거라고 생

영원한 우리땅, 독도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각한다. 그러나 대의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것은 곧바로 답을 찾기에는 어려운 지점에 있다. 좁게 봤을 때는 한국에서의 지금 정당정치의 문제는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니까. 심각성을 느끼고 논의를 해봐야할 문제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제기될 문제이다. 그동안 미우나 고우나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매개나 완충역할을 해온 면이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쉽지 않은 지점에 왔다. 정당이든 시민단체든 이번 일을 겪으며 상당한 고뇌와 고민이 있을 것이다.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 안진걸 : 사회에 갈등이 있거나 그것이 폭발할 때, 그것을 대의정치가 흡수 · 조절하는 게 역할이지만, 그것은 사실 예전에도 잘 안됐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야당이 없다고 표현할 정도의 이런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시민들 역시 그런 판단을 내리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왜 국회의원들만 탄핵권을 가지고 있느냐.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탄핵 같은 제도가 생겨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 오연호 : 우리는 지금 새로운 현상을 목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동안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뿌린 씨앗 위에 있는 것이다. 어떠한 진화된 모습이든, 변화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모습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토대를 마련한 것. 표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신장시켜온 것.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지금의 사건을 목도하고 있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나는 '5 · 6월 촛불항쟁' 이라고 하면 좋겠다. 군홧발에 대한 저항과 다를 바 없는 국민주권 없음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항쟁이라는 말도 심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을 촉발시킨 세대는 촛불세대라고 부를 수 있다.

▷ 시민 : 종로구 거주민이다. 시위에는 5회 정도 참가했다. 명칭은 10대 촛불 시민혁명이 어떨까. 지난해 대선 이후 적어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분이 도덕적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되었으니까, 고소영이니 강부자니 얘기 들으면서도 인사조직을 할 때 특별하게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고, 결국에는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역시 아이들은 무서운 게 없다. 무서운 10대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았나 싶다.
2부의 주제가 되겠지만,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내일이 바로 그날이다. 충분히 모일 것이고, 내일 성공을 할 텐데, 어떻게 매듭지어 나갈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토론을 기대한다. 10대가 훌륭하게 만들어놓은 이 판을 어른들은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 오연호 : 어려운 토론을 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부터 답하고 가자. 내일 집회는 몇 시부터?

▷ 안진걸 : 내일 공식적인 행사는 7시에 촛불문화제가 태평로에서 있다. 장소 시간도 통일적으로 할 필요 없지 않나. 시민들께서는 시작도 자율적으로 하신다.

▷ 하승창 :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마감이 만들어질 것이 아니다. 생각을 다르게 가져야 한다. 지금은 그런 방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은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에 1차적으로 달려있다. 두 번째는 지금 헌법소원을 내놨으므로 헌재 판결에 달려있다. 그에 따라서 지금은 구호일 뿐인 퇴진운동이 실제화 되느냐 안되느냐가 달려 있다.

영원한 우리땅, 독도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시민단체가) 퇴진운동을 기획하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것을 역동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과 요구받는 당사자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 오연호 : 우리가 무엇을 핵심적인 성과로 봐야 할 것이냐, 와 연관되어 있다.

▷ 김은실 : 시민들과 요구받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시민들의 요구 전체가 전부 받아들여지는 것이 완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항상 잔여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지금 특정 영토에 기반한 국민국가 내에서 뽑힌 사람들과, 국민국가 밖에서 협상을 해야 하는 전 세계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서의 국면이다. 협상 대표자들과 시민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가는 사실 간단한 문제다. 이것은 국민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질문 제기다.

▷ 오연호 : 질문들이 2부에 집중되어 왔다. '구호 중에서 퇴진이라는 용어가 매우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퇴진을 목표로 해야 하나? 달성 불가능해보인다. 실질적 목표는 무엇으로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실제적으로 100일밖에 안된 정권에게 퇴진하라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일까. 노 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다. 거리에서 들어보면 또 그 구호가 가장 절실하다.

▷ 엄기호 : 퇴진구호를 계속해야 하느냐, 어디까지가 현실적이냐, 그런 질문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 질문을 던짐으로써 지금 아고라에서는 엄청난 논쟁중이다. 지금까지 이 시위는 우발성과 역동성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일 사람을 많이 부르자' 인 것 같다. 그 이후는 내일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고 같이 토론해야 할 문제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가 머릿속에 간직하고 갈 것은 있다. 지금 우리가 87년에 만든 체제가 얼마나 부실한지가 드러났지 않느냐. 민의가 왜곡되고 전혀 반영되지 않는 지금 이 체제. 헌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세세한 제도의 문제가 된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국가와 시민의 대결은 만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해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면서 내일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지금 할 일이다.

▷ 오연호 : '퇴진'은 아직은 구호인가? 아니면 실제화가 되고 있나?

▷ 안진걸 : 아직은 구호수준에서 외치는 분들과, 진짜 탄핵과 퇴진까지 결의하신 분들이 뒤섞여 있다. 지금 이게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민심'이라는 것은 출범100일밖에 안된 정부에 대해서도 퇴진을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당선부터 따지면 6개월 가량이다. 앞으로의 개선 여지가 거의 없는 것 같은 정부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절망을 줬다. 재정경제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상속세 폐지, 재벌특화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모두 잘 알고 있다. 과연 이 정부는 누구를 대변하나? 국민이 아니라 미국 쇠고기 업자를 대변하나? 단지 실제로 퇴진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가 미지수인 것이다. 와글와글한 토론의 과정이 지난하게 펼쳐질 것이다. 앞으로 이런 전개가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 시민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부적절하다. 한 달 이상 사람들이 모여서 주장을 하

영원한 우리땅, 독도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는데, 이 대통령의 태도변화가 전혀 없다. 직접민주주의가 구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거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물대포를 발사한 날,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아침 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입장변화가 없었고, 그 발언 자체가 청와대에서는 사라져 있다. 답답한 구도다. '나와 있는 사람은 떠들어라. 나는 밀고 가겠다.'고 하고 있다. 내일 집회가 끝나고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는데. 제도개선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 어떻게 디지털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인가로 얘기가 이어져 나갈 것이다.

▷ 시민 : 인터넷방송사이트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다. 촛불집회 하는 시간에 아프리카를 들어가 보면 집회는 거의 박지성 축구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토요일 밤에 광화문에서 대치할 때 굉장히 극렬했다. 그때 밑에서 촛불소녀들이 울고 있었다. 어른들이 왜 이렇게까지 경찰과 대치를 해야 하나. 그것을 어른들에게 되묻고 있더라. 나는 촛불집회를 처음 한 소녀들의 숭고한 뜻을 계속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녀들의 뜻에 어른에 의해서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면이 많이 개입됐다. 퇴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2008년도에 아날로그적 생각을 가진 일부 시민들이 문제다. 안진걸 씨께 질문이 있다. 10일 시위에 민주노총이 온다는데, 민주노총이 뜨면 경찰과 큰 전쟁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있다.

▷ 오연호 : 폭력사태에 대해 앞으로 비폭력을 계속 지켜나갈 것인가도 이슈가 되고 있다.

▷ 안진걸 : 시위대는 40여 일 동안 철저하게 비폭력 평화적으로 행동해왔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재협상 절대 없다' 부터 심지어는 '친북 주사파 배후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사탄의 무리라는 말까지 나왔다. 굉장히 절망적이고 답답함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일부 대치가 발생했던 것이다. 소화기가 엄청나게 남발되고 방패로 찍어버리고 하는 과정에서 격분한 시위대가 일부 충돌한 것이다. 예전에 선배 세대들이 했던 시위에 비하면 정말 얌전한 것이었는데 그런 평가는 부당하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그런 정도의 충돌도 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아고라 네티즌은 무섭다. 적극적이라서 힘들다는 의미지만, 사실은 대단하다.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지혜롭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용될지도 잘 알고 있고, 자기 조정능력들이 있다. 민주노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거리 항쟁은 우리 국민은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거다.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입장을 취한 단체들도 매우 많이 참여하고 있다. 보수 · 진보 이념 문제가 아니고 밥상 문제이고,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문제이지 않느냐. 민주노총 위원장님에게 직접 들었는데, 충돌이 일어날 염려는 전혀 없다.

▷ 오연호 : 댓글로 엄기호 선생님께 질문이 올라왔다. 진보신당이신데. 만약 진보신당이 집권했는데 보수세력이 시청 앞에 모여서 연일 퇴진을 외치면 어떡하실래요. 라고 묻고 있다.

▷ 엄기호 : 지금 정부가 탄압을 야밤인 새벽 3시에만 하고 그 전에는 못하는 이유는 거의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보수세력이 시위를 했을 때 진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영원한 우리땅, 독도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 민경배 : 폭력성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퇴진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조급해지다보니 돌출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나 조급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청와대로 진출을 하다가 전경들로 가로막히는데, 사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포위당하고 있는 것이다. 물리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여론의 바다 속에서 청와대는 고립된 섬으로 남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시민들이 조급해 한다. 시민들의 움직임에 온라인적인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상승곡선을 타고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시민들의 움직임을 보면 아직 클라이막스까지 오기 전의 단계다. 내일이 클라이막스일수도 있고, 내일이 또다른 상승곡선일 수도 있다. 클라이막스에 가기도 전에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조급스럽지 않느냐. 폭력이라는 행동도 그런 면에서 나온 것 같다.

▷ 오연호 : 네티즌과 조중동 여론형성과정에서 서로 대결하고 있는 국면인데, 최종적으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왔다.

▷ 민경배 : 당연히 네티즌이 이기고 있는 것 아니겠나. 이것은 역사적 추세이고, 사회적인 섭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하는 것 같다. 이제는 특정 언론매체가 만드는 브랜드나 규모로 우위력을 점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상당히 공용화되었고,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거대조직이 지금의 변화무쌍한 소위 게릴라 저널리즘을 당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이다. 포탈에의 집중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했다. 그런데 다음의 아고라같은 거대한 집중화된 공간이 없었다면 과연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 어쨌든 이런 공간이 있었으니 이런 폭발이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다음도 결국은 기업인데, 이게 국가에 의해 규제당하거나 종속이 되면 그때는 이것이 또 얼마나 큰 치명타가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포탈보다는 개인 미디어다. 블로그나 아프리카의 개인 방송과 같은 개인 미디어들이 촘촘히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면, 기성언론은 물론이요 포탈의 위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더 큰 미디어파워를 행사할 수 있다. 또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다.

▷ 시민 : 한 세대만 가지고 지칭하지 말고 전 국민의 참여를 부각해야 하지 않나?
촛불은 자기를 희생해서 어두운 곳을 밝혀준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6.10 이후에는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메시지도 있어야 한다.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어느 계층에 대해서, 이런 토론이 대안을 제시하는게 어렵긴 하지만 고민은 해봐야 한다.

▷ 시민 : 정권퇴진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이게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오고 갔는데, 그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퇴진이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의외로 간단하구나, 가능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요구가 빠르게 나올 수 있었던 듯하다.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국부' 였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도 아니고 뭣도 아닌 관계다. 국가가 예전과 똑같은 사상이나 이념이나 기반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개개인의 경험에 의해 이미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이전과는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이렇게 다양한 관계들이 있는 시점에서 제도적으로 포함하고 읽어내고 반영할

영원한 우리땅, 독도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 김은실 : 사실 광우병대책회의에서 정권퇴진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문제적이지 않은가 생각한다. 광우병대책회의는 쇠고기 수입에 타겟이 맞춰져 있는 단체 아니냐. 물론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겠지만. 지금 클라이막스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어디가 클라이막스일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슈를 좀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 오연호: 정권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안의 핵심 정책, 개념이 중요한데, 그를 개선하기 위해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민경배 : 이게 단계별 상승을 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미 광우병 그 자체만이 현안이 되는 단계는 넘어섰다. 시민들의 요구는 높아져 가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입장을 고수하고 엄한 소리를 하고. 국민은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이 정부를 우리가 계속 봐야 하느냐. 거기에서부터 발전이 시작되었다. 다른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정부 퇴진 구호가 나오는 2단계 국면으로 접어 든 것이다. 이게 또 어떤 국면으로 진화할지는 모른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풍선에 바람을 넣었을 때, 외부에 다른 요인이 없다면 계속 바람이 들어와서 뻥 하고 터진다. 그렇다면 그것이 클라이막스가 된다. 혹은 불다가 입을 떼면 맥없이 푸시시 빠져나갈수도 있는데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예기치 못했는데 누군가가 폭 찔러서 클라이막스까지 가기도 전에 터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사태의 국면은 진화를 하고 있고 단계를 상승적으로 밟아가고 있다. 어쨌든 지금은 광우병만이 사안의 전부는 아님은 분명하다.

▷ 오연호 : 오마이뉴스에 김보영씨가 올린 '독립수평적인 국민대안위원회를 제안한다.' 라는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있다. 현실성이 있을까?

▷ 하승창 : 위원회라는 것이 상시적으로 어젠다를 가지고 토의하는 온 ·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조직이라면 시도해볼 만할지도.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안진걸 : 시민들이 국회가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정책 나아갈 방향을 직접 수평적 · 대안적으로 토론한다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아까 김은실 선생님께서 국민대책회의에서 퇴진구호 내걸었냐고 여쭤보셨는데, 국민대책회의가 공식적으로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네티즌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목소리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뜻이었다. 국민이 심판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를 줄기차게 던지고 있는데 정권수뇌부에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대책회의와 시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 오연호 : 내일 평일인데 100만 명이 모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다.

▷ 안진걸 : 87년 6월항쟁 때 10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군사독재를 끝장냈던 그 기억과

영원한 우리땅, 독도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연대를 재현해보자는 목표로 시민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제안해 본 것이다.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관건은 아니다. 국민의 민심이 얼마나 잘 전해지느냐가 문제다. 지금 시민들의 절망, 분노, 실망 그리고 네티즌의 참여 열기에 비추어본다면 서울시내에 100만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행동지침을 '휴.가.내.고.참.여.하.자.'라고 드렸다. 노동조합에서도 파업하고 나오겠다, 연차내고 나오겠다는 분들 많다. 최고 50만은 예상한다. 종교계에서도 대거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

- 마무리

▷ 하승창 :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사건은 우리 시대에서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사건이지 않을까 싶다. 사회운동 하는 입장에서는 특히나 더 그렇게 느껴진다. 정치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언론지형도도 달라질 것이고, 그 밖에 거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된다.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게 될지 많은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민경배 : 정작 오늘 '시민단체' 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온 듯하여,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앞으로 시민단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섭다고 하고, 우리도 손을 쓸 수 없다, 우리의 영향권을 벗어났다고 하는데. 현실이 그렇긴 하지만 사실 아쉬운 태도다. 여태까지 시민운동의 흐름 속에서 시민단체는 대안이 없는 주연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주연은 주연인데 별로 인기 없는 주연이 됐다. 요즘은 조연이나 스탭으로 나오게 된 게 사실이다. 요즘 인기 있는 조연 많다. 어떻게 하면 인기 있는 조연으로서의 새로운 자기자리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 학문 영역과 실천적 영역 모두에서 이런 고민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지금의 상황이다.

▷ 김은실 : 지금의 국면은 많은 정치인, 지식인, 시민들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다. 배워야 되는 시점이다. 신자유주의국면으로 들어갔는데, '실용' 노선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치, 규범, 새로운 공동체의식을 원하는 시민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엄기호 : 지금 전개되고 있는 촛불집회가 가진 훌륭함 중 하나가 이미 전국민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냈다는 것이다 광우병뿐만 아니라 압도적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대운하는 안 된다, 미국산 쇠고기는 안 된다, 물 민영화는 안 된다' 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포럼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 그걸 계속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촛불지뵈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전반에 대해 태클을 걸고 저지하는 합의지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200만이 모였던 프랑스 노동법 집회에서 길거리에 나가보니 호호할아버지부터 애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는데, 자신이 참여했던 레지스탕스, 68혁명, 공공노조파업에 대한 각각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각각의 기억을 가지고 나오더라. 어떻게 우리의 기억을 지금의 투쟁으로 연결시킬까. 이러한 자신들의 기억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지금의 정치에 접속하게 할 것인가. 10대의 투쟁이 아니라 전국민이 같이할 수 있어야 한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모든 기억을 동원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모든 분들이 자기의 정치를 잘 펼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영원한 우리땅, 독도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

▷ 안진걸 : 40여 일간의, 국민들의 경이로운 참여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잠 못 자도 좋으니 이 뜨거운 열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시민단체사회나 대책회의가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다. 조연의 위치라는 건 전혀 서글프지 않고, 시민 · 네티즌이 주연인 것이 너무 기쁘다. 지금 우리는 꾸중 듣는 조연이다. 잘해보려고 하긴 했는데, 스스로의 낙후성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 그런 지적에 대해 고쳐나가려고 노력하고 고뇌한다. 그동안 쌓아왔던 저력이 시민네티즌과 잘 어우러져 상승작용을 해서,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권력의 최후가 어떤 것이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고리안'이라는 신 용어가 생겼다. 어떤 이들은 68혁명보다 더 경이롭다고도 하더라.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데이트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더라.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함께해주시면 좋겠다. 저희도 칭찬받는 조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시민 : 촛불집회에서 나는 마치 꽃밭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개인의 표현이며, 적극적인 참여인 이런 아름다움이 무서울 수 있다는 상징성을 우리가 어떻게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국가의 대 의제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 동네, 여러 가지 작고 소소한 의제들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표출하는 풀뿌리 권력의 상징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꾸준히 각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3권분립이 아니라 4권분립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 시민 : 지금으로선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열매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 오연호 : '우리 사장님이 전직원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지금까지 상당한 성과가 나왔다. 집권당 내부에서도 '재협상' 얘기가 나왔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다. 또 우리 국민들이 촛불이 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성과이다. 촛불이라는 것은 가녀린 것이고 함께 모여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72시간 릴레이 촛불문화제부터 오늘의 토론까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점에까지 와있다. 우리는 처음 문제제기를 한 10대 촛불세대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여러 문제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소통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정권과 국민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의 소통도 중요하다 강남역사거리와 광화문에서 모인 시민들이 서로 강을 건너 만나서, 서로 우리 사회의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중요하다.

영원한 우리땅, 독도
Dokdo forever belongs to Korea